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11월 3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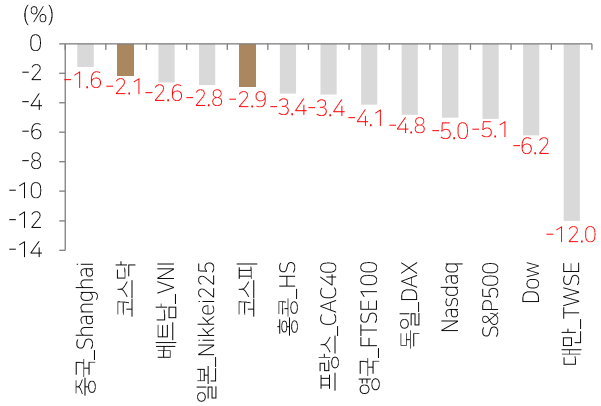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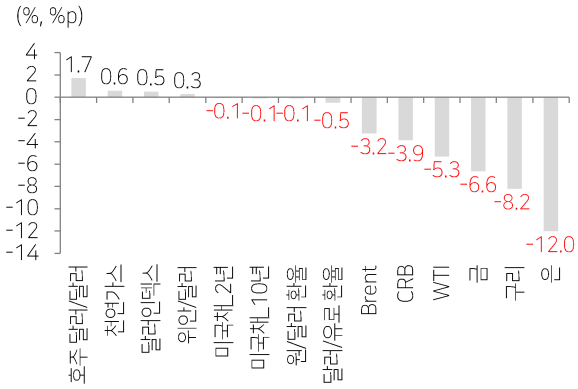
Ⅰ.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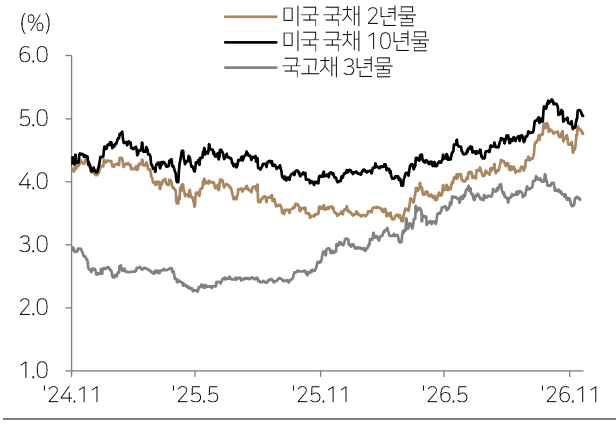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1/13일 대비 11/19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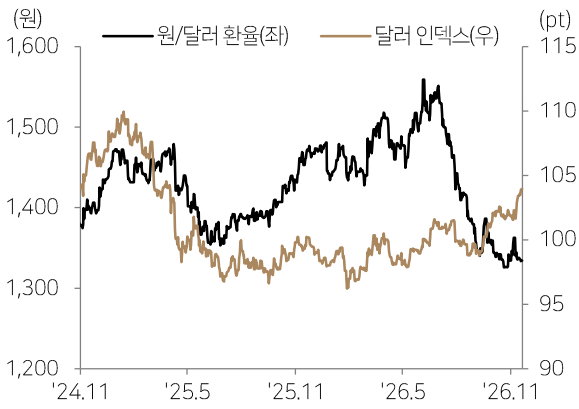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1/13일 대비 11/19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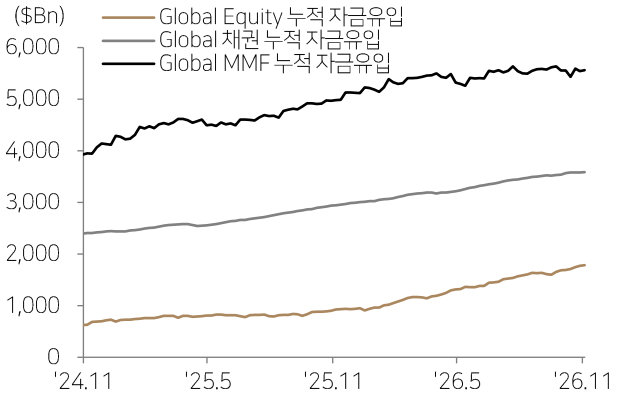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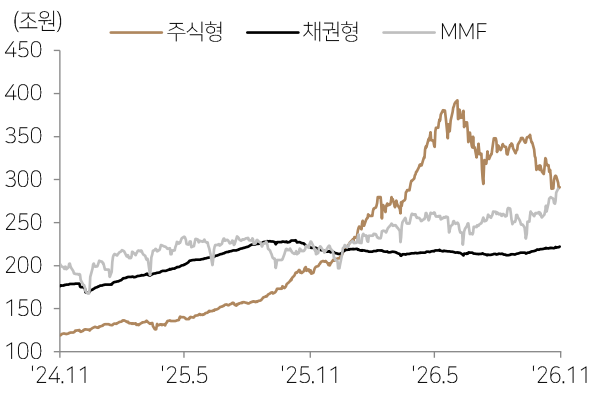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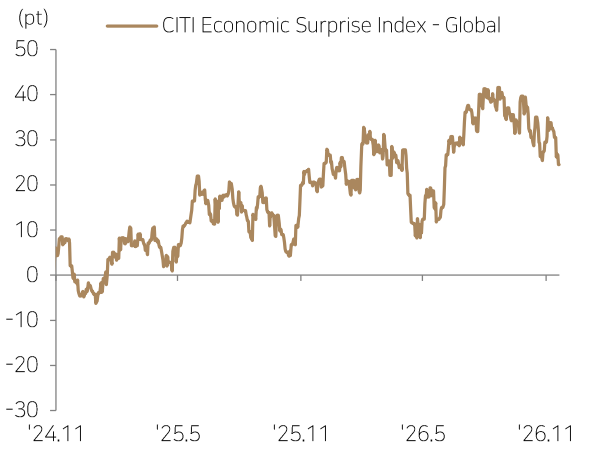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10월 CPI가 코어 확산 조짐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부담을 다시 상기시키는 소재로 작용한 상태. 12월 8~9일 FOMC를 앞두고 PCE도 관심의 대상. PCE 물가 역시 전반적으로 지난달보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항목 상 확산 조짐이 뚜렷해질 경우 25bp 이상 인상 속도와 최종 금리 상향 경계심이 생길 여지
- 전일(19일) 연간 수출 누적 금액 1조달러가 돌파된 상황.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1,072억달러로 산술적으로는 연간 1.1조달러 중반대까지 기록이 무난해 보이는 상황. 양호한 금액 레벨이 연장될 것으로 보지만 증가율은 4분기 정점을 통과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듯. 무역수지의 경우 향후 유가 하락 기대가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높은 수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11-23	한국	11월 20일간 수출/입	%yoy	-	105.4/42.8
2026-11-23	미국	11월(잠정) S&P 글로벌 제조업 PMI	Index	54.5	54.9
2026-11-24	한국	11월 소비자심리지수	Index	-	105.4
2026-11-25	미국	3분기(2차) GDP	%qoq	3.5	3.4
2026-11-25	미국	11월 CB 소비자기대지수	Index	92.1	91.7
2026-11-25	미국	10월(잠정) 내구재 주문	%mom	0.4	1.9
2026-11-25	미국	10월 PCE 물가지수	%yoy	3.8	3.6
2026-11-25	미국	10월 근원 PCE 물가지수	%yoy	3.2	3.1
2026-11-25	미국	10월 개인소득	%mom	0.4	0.2
2026-11-25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수	%mom	0.4	0.5
2026-11-26	미국	10월 신규주택매매	천건	648	676
2026-11-27	일본	11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yoy	3.1	2.8
2026-11-27	미국	10월(잠정) 도매재고	%mom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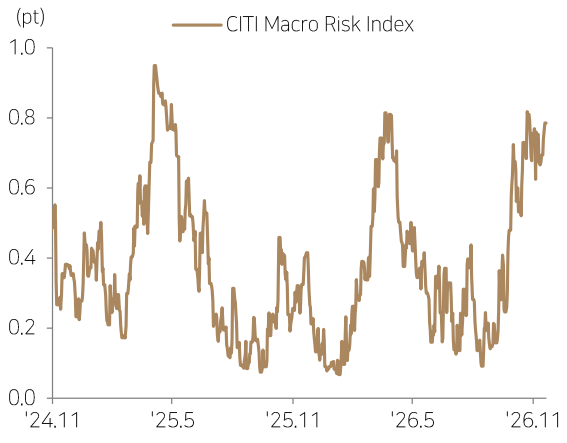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11/26	한국	상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은 7월, 8월 금통위에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이후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3.00% 동결 결정. 기자회견에서는 성장 및 물가의 상방 압력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2028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11월 회의는 수정 경제전망과 27년도 금리 정책 점도표를 통한 최종금리 확인에 주안점이 놓일 것. 최종 금리 3.5%에 대한 확신이 형성될 경우 금리는 의미 있는 변곡점을 맞이할 여지
11/27	미국	중	블랙프라이데이	▪ 추수감사절(11/26) 다음날로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의 공식 개막. 고금리, 고유가발 인플레 부담 속 미국 소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판매 실적이 유통, 이커머스, 소비재주 등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최근 미국 10월 소매판매가 자동차, 가구 판매 축소로 전월 대비 증가세 둔화를 보인 바 있음. 반면 자동차, 주유소, 음식 서비스 등을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는 전망치를 상회하며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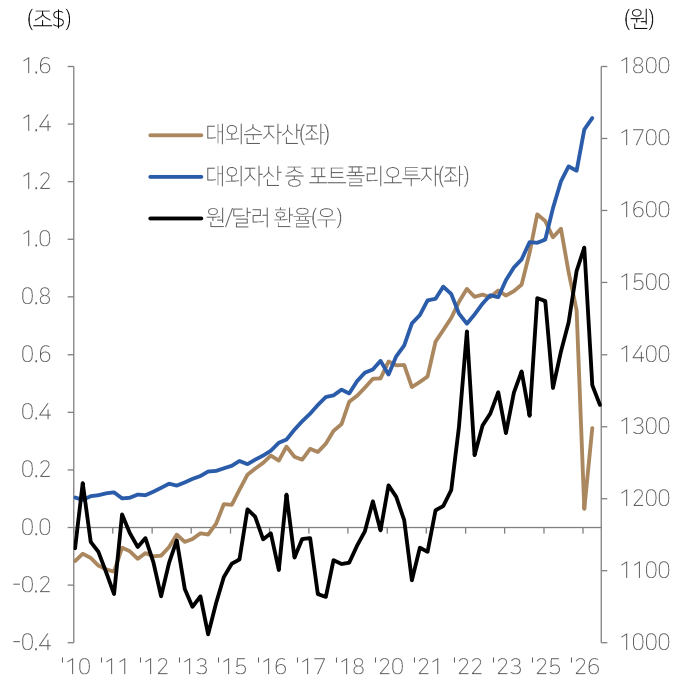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11/13~11/19) 증시 동향	▪ KOSPI(-2.9%), KOSDAQ(-2.1%) 하락. KOSPI는 미디어,교육(+13.1%), 소매,유통(+7.7%), 호텔,레저서비스(+5.6%)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비철,목재등(-7.4%), IT가전(-6.8%), 화학(-6.2%) 업종 하락.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 사임 이후 AI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앤트로픽 IPO 앞둔 수급 부담이 부각. 코스피는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에 4,900대 마감하는 등 변동성 확대. 주중 엔비디아가 호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AI 생태계 투자 지속을 발표하며 코스피 반등을 시도. 주 후반 수출 1조 달러 달성 등 호재가 이어지며 5,100대 회복 마감 ▪ DOW(-6.2%), S&P500(-5.1%), NASDAQ(-5.0%) 하락. 엔비디아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앤트로픽 IPO 앞두고 약세 출발. 주중 미 국가안보국 전산 장애 소식에 투자심리 위축, 이어 발표된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연준 인사의 빅스텝 시사 등 매파적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 주 후반 앤트로픽 상장 이후 차익실현과 AMD발 AI 산업 불안감 확산에 매물 출회되며 약세 마감
차주 (11/23~11/27) 증시 전망	▪ 3분기와 4분기의 증시는 모두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두 구간의 성격은 꽤 다르다고 보고 있음. 3분기는 금리에 대한 경계심, 즉, 할인율에 대한 부담이 조정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10~11월은 어느 정도의 성장이 얼만큼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성장의 높이와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관련해 지난 주 언급했던 바와 같이 12월 초 텍사스 주정부의 감사 보고서 확인 이슈가 있고, 8~9일은 FOMC가 예정되어 있음. 해당 이벤트들이 예상보다 부담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경우 변동성이 한번 더 자극될 여지도 존재해 해당 이벤트 확인 후에 적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최근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치까지 상당한 폭으로 할인시킨 현 지수 레벨을 저평가 영역으로 보는 데는 동의. 더불어 시장 전체에서의 이탈이라기보다는 대안을 모색하는 순환매 관점에서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음. 상승을 연속성 있게 이끌어 줄 수급이나 소재가 당장은 부족해 보이나, 현 지수대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적어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단기 관점에서는 IT와 금융+필수소비재의 바벨 전략 그리고 원화 강세, 유가 하락에 따른 항공주 관심을 제언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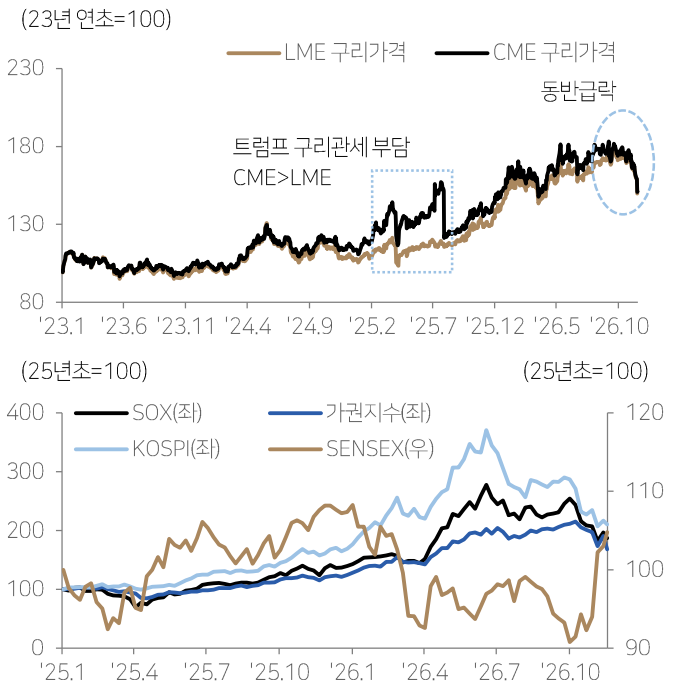
상반기 급감했던 대외순금융자산 3분기에 역사적 규모의 빠른 반등 시현



Source: 언론보도 취합, 구글 공개자료, 다올투자증권

- 전일 발표된 국제투자대차대조표 상 우리나라의 3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은 3,448억$. 2분기 말 640억$에서 +2,807억$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증가
- 25.3분기 1조$ 수준이었던 순대외자산은 26.H1 주가 급등에 따른 대외부채(외국인 보유증권 가치) 급증으로 크게 감소. 이번 순대외자산 증가도 하반기 주가 급락과 외국인 매도에 따른 대외부채의 평가금액 감소가 영향. 더불어 대외자산 중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의 증가도 영향
- 환율 관점에서 순대외자산은 우리 경제 가용 외화의 역외 보유량으로 볼 수 있음. 순대외자산 증가는 달러 역외 보유가 많다는 점에서 높은 원/달러 환율 레벨을 설명 가능. 현재는 강한 수출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환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높아진 환헷지 비율이 원화 강세로의 수급 우위를 만들고 있지만,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한 대외자산의 강한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점은 향후 수출 둔화 국면에서 환율의 되돌림이 나타날 개연성을 내포. 당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달러 하락, 2분기 이후 되돌림 경로를 전망 중

구리 가격 급락은 AI에 대한 경계심 영역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그리고 인도와 같은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들도 등장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최근 구리가격 급락이 이어지고 있음. 전일도 구리 가격은 LME와 CME 가격 모두 -5%대 급락을 기록했고, 11월 들어서만 -12% 내외의 낙폭을 기록 중. 양 시장에서 동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관세 등 지엽적 이슈 보다는 AI 관련 수요 둔화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편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차별적 상승세를 보이며 전고점에 근접하는 증시가 있음. 바로 인도증시. 인도는 AI밸류체인 노출도보다는 금융과 내수주 비중이 높은 구성. AI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는 구간에서 연중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AI 밸류체인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11월만 +11%대 상승률을 기록 중
- 상기 움직임들이 특별히 새로운 시사점을 주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의구심이 인프라와 원자재까지 폭넓게 확산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재확인 정도는 가능한 모습. 이 같은 광범위한 경계심의 진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적극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